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거리 20m로 좁혀진 까닭은?

지난해 700m서 가까워져...시, 철새보호·생태복원 정책 결실 꾸준한 습지복원 개체수도 급증...국제두루미재단 방문 확인도

월동초기 수 백만에 달했던 순천만의 겨울철새 흑두루미의 탐조거리가 3개월 새 수 십m로 짧아졌다. 먼 거리의 인공적으로도 민감하게 날개짓하는 흑두루미의 경계심이 이렇게 누그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순천만에서 처음 발견된 당시만해도 700m 정도 떨어져 관찰해야 했던 탐조거리가 점차 짧아져 1월말 현재 20m까지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순천시의 지속적인 철새보호와 생태복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둬 인간과 흑두루미의 거리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반 식당·펜션 난립과 무분별한 낚시배 운항, 주변 농경지 출입 등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인해 흑두루미는 국내 마지막 월동지 순천만에서 일본 이즈미로 옮겨갔다.

2006년 순천만 흑두루미는 불과 167마리였고 관광객은 13만명에 불과했다. 당시 노관규 시장은 이 땅의 주인이었던 생명들을 다시 본래의 터전인 순천만으로 불러오는 것이 인간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철학으로, 순천만 습지 복원을 통한 원시적인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동안 시는 지속가능한 생태 보전 정책을 추진하며 ▲순천만 인공 환경저해시설 철거 ▲흑두루미 전선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전봇대 282개 철거

▲흑두루미 영농단 구성 및 친환경 농업 추진 ▲철새 보호를 위한 서식지 갈대 울타리 조성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순천만의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흑두루미 개체수도 급증했다. 2006년 167마리에서 2008년 344마리, 2015년 1410마리, 2024년에는 7606마리로 증가하며, 순천만은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절반이 월동하는 주요 서식지가 되었다. 특히 개체수 증가뿐만 아니라 탐조거리도 700m, 500m, 300m, 80m에서 최근 20m까지 가까워졌다. 이는 순천만 습지 복원을 통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철학의 성과로, 순천만이 멸종위기 겨울철새 탐조 성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세계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국제두루미재단(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은 순천시의 생태철학과 순천만의 보전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직접 방문에 이를 확인했다.

오는 5월에는 세계습지의 날과 세계철새의 날을 기념하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과 국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11월에는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순천이 보유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순천만은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절반이 월동하는 주요 서식지가 됐다.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에는 흑두루미,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흰기러기 등 국내 희귀·멸종위기 겨울철새들의 파라다이스가 되고 있다"며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생

태철학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생태철학을 공유하고, 생태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와 경제를 융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지역발전지수 5회 연속 전남도 1위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 23위

광양시의 지역발전지수가 5회 연속 전남 1위를 차지하며 '발전하는 도시'의 위상을 굳게 지켜가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4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RDI)'에서 41.6점을 획득, 전남권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가 전주시에 이어 호남권 2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에선 상위권(30위 이내)인 23위를 기록했다.

'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발전 수준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생활서비스(삶터) ▲지역경제력(일터) ▲삶의 여유공간(쉼터) ▲주민활력(공동체의터)의 4대 부문과 21개 세부 항목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분석해 2년마다 발표되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의 주민활력 부문(전국 13위)과 지역경제력 부문(전국 17위)에서는 호남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지난 2016년 전남 1위(전국 28위) 이후 2018년(전국 30위)·2020년(전국 25위)·2022년(21위)에 이어 2024년까지 5회 연속 전남 1위이자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며 발전하는 희망의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전국 상위 25개 자치단체 중 16개가 경기도권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광양시의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물고기 가격 하락 대책 총력 생산량 감축·채취선 격일제 운영

고흥군이 판매용 김 원료인 물고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지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공영민 군수는 물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고흥군수협 위판장(구암항·발포항)을 6일 방문했다.

이날 고흥군에서 생산된 김의 1포(120kg)당 최고가격은 전년보다 119%(10만3000원) 하락한 8만6900원, 최저가격은 전년대비 97%(3만8900원) 하락한 4만원에 위판됐다.

이에 공영민 군수는 "물고기 생산량과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김생산인연합회 고흥지회도 가격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20% 감축하고, 김 채취선을 격일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고흥군청에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주재로 김 산업 협의체 물고기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김 양식 합동단속 ▲수급 안정사업 발굴 ▲계약생산 시범사업 도입 등이 논의됐다. 한국김산업연합회는 오는 10일부터 물고기 생산 자체 감축을 위해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활기찬 곡성 만들기... '건강팔팔마을사업' 본격 추진

11곳 선정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 주민 사업설명회·기초체력 평가

곡성군의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팔팔마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건강팔팔마을사업'은 초고령사회에서 건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활기찬 곡성을 만들기 위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24일 사업 시작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사업 추진 11개 읍·면 마을을 선정했으며, 생활터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날 설명회는 건강팔팔마을 사업담당자 및 마을대표자, 건강지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함께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프로그램 운영 시 경로당 등 장소 협조와 마을 대표자 및 건강 지도자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걷기·요가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도 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수렴했다.



곡성군이 지난달 24일 건강팔팔마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곡성을 원형마을, 오곡면 봉조1구 등 11개 마을, 8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버체조·걷기, 생활요가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사업설명회 및 기초체력 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을 안내하고, 기초체력 7종(혈압, 혈당, 약력, 유연성, 근육량, 체지방량, 체중) 측정을 통해 주민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각 마을 맞춤형 '슬기로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보건교육을 통하여 혈압, 당뇨 등 건

강위험요인에 따른 자가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치매예방관리와 구강보건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독려 등을 연계·홍보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관내 마을 대표자 및 건강 지도자, 유관기관의 협력에 힘입어 군민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건강팔팔마을 주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14일까지 35세대

구례군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생은 오는 14일까지 35세대를 서류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교육생에게는 체류 공간과 영농 실습 기회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귀농·귀촌 희망자다.

교육생이 지급하게 되는 거주 유형별 보증금은 48만원~84만원이며, 교육비는 원룸형 월 16만원, 단독주택형 월 21만원~28만원이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10개월간(3월~12월) 체류 공간(원룸형 30세대, 단독주택형 5세대)과 영농 실습장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